

광양항 고질적 체선, 연말엔 개선

〈하역 못하고 대기〉

체선을 4.01% 전국서 가장 높아...국정감사 때마다 지적 제2 석유화학부두 12월 완공...1만t급 2개 선석 추가 건설

광양항이 항만시설 부족으로 선박이 입항하고도 화물을 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면서 언제쯤 개선 방안이 마련될 지 관심이 쏠린다.

전남도는 올 12월 여수석유화학부두가 새롭게 건설되면 체선을 감소 및 산단 공장 증설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따른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더불어민주당·나주회선) 의원이 광양항을 비롯,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등 항만공사별 체선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7년~2021년) 간 광양항의 체선율이 4.01%로 가장 높았다.

체선율은 선박이 입항하고도 선석 등 시설 부족

으로 하역 작업 등을 하지 못하고 정박지에서 12시간 이상 대기하는 비율을 뜻한다.

광양항의 체선율은 4개항 평균 체선율(2.27%)보다도 높고, 가장 낮은 체선율을 보인 부산항(0.74%)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특히 체선을 상승은 항만공사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각 항만공사는 항만시설 부족으로 대기하는 정박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부 면제해주고 있는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5년간 총 60억 1400만원을 면제해줬다는 게 신 의원 설명이다.

최저 체선율을 보인 부산항의 경우 같은 기간 7억9400만원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데 그쳤다. 광양항 체선면제금액의 경우 인천(16억1000만원), 울산(21억9300만원)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다.

여수항만공사의 경우 체선율로 인해 매년 10억 원 이상 시설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통항여건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진행중으로 오는 12월 제2 석유화학부두 완공으로 1만 t급 2개 선석이 추가로 건설되면 체선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광양(여천)항 모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도 현재 기본실시설계가 진행중인 만큼 오는 2024년부터 시작돼 2029년 마무리되면 기존에 비해 항로 선형이 개선되면서 모도수도의 선박 교차 통행이 가능해져 체선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밤에도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광주 동구 지원1동 소원마을주민자치위원들이 12일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용산초등학교 앞에서 야광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광주 동구청 제공>

광주 단독주택 노후수도관 교체 지원

市, 복지시설 최대 1000만원...차상위계층 주택은 무상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깨끗한 수도를 공급을 위해 단독주택 등에 설치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량(교체·경생), 세척 공사비 지원 등을 통해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하고, 옥내급수관 노후로 인한 수질 저하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비 지원 대상은 1994년 3월 31일 이전 준공

된 건축물 중 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이거나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지원 규모는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최대 10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최대 80만원 ▲사회복지시설 최대 1000만원 ▲학교·유치원 최대 500만원 등이다. 공사비가 최대 지원가

능 금액 이하인 경우 80%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우선 지원하며, 개량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각 자치구와 협조해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 지원을 못 받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609-6273) 및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박준열 기술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수도물의 품질 향상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박필순 "Y프로젝트, 녹색전환사업 기대" 임미란 "도시철도 2호선 공기 단축 필요"

광주시의회 시정질의

강 시장 "Y프로젝트 인문학적 접근 친환경 가치 높이는 데 중점 둘 것"

12일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영산강-황룡강 권역 Y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생태환경 훼손 우려와 사업비 증가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박필순(민주·광산3) 의원은 이날 광주시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Y프로젝트는 영산강을 따라 인공 서핑, 물놀이장, 번지 점프, 집라인 등 레저스포츠 시설과 엑스트림 체험장 등이 들어서는데 자칫 토목 개발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Y-프로젝트 사업이 4대강 사업처럼 녹색성장의 탈을 쓴 토목개발사업이 아니라 녹색전환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영산강 시민의숲 확대, 민간합동 전담팀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Y프로젝트 사업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시가 처음으로 학술 분야를 전체 용역의 10%나 포함해 발주했다"며 "개발 중심용역이 아니라 인문학적 접근하고 친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발전의 중심축으로서의 가치, 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 시민 여가

와 삶의 공간으로서의 가치, 활력 넘치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광주·전남 상생과 통합의 축으로서의 가치 등을 담겠다"고 덧붙였다.

"Y 프로젝트"란 영산강과 황룡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형상화해 마한·백제 문화 발원지이자 현재는 도시 중심을 흐르는 입지적 특성을 살려 지역의 미래와 발전 전략을 디자인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날 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사업비 증가로 개통이 지연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지적됐다.

임미란(민주·남구2)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장기화하면서 시민 불편과 공사장 인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공기 단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강 시장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광주가 선택한 사업인 만큼 멈출 수 없다"며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협의 중이며 연말쯤 공기나 예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문제에 대해 강 시장은 "지상 구간이 지하로 가거나, 법령 개정으로 안전시설이 강화되고 물가나 임금인상에 따른 상승 요인으로 총사업비가 많이 늘었다"며 "건설 과정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광주시청-광주역·17km)은 당초 내년에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2026년에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역에서 시청에 이르는 2단계 사업(20km)도 2024년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2029년이나 개통될 예정이다. 나머지 3단계 구간(백운광장-효천역·4.8km)은 착공 여부마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 문화재 야행 시작

11월까지 목포·여수·순천

전남도가 오는 11월까지 목포, 여수, 순천 등에서 '풍성한 가을밤 문화재 야행(夜行) 행사'를 펼친다. 문화재 야행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전남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2021년에 이어 사업비 13억원을 확보, 지역민과 관광객 등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수 문화재 야행사업은 14-16일과 21-23일 두 차례 진행된다. 행사 기간 진남관, 여수 달빛갤러리, 임암유물 전시 등 24시까지 야간 개방을 한다. 순천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은 순천향교와 남문터광장 일원에서 11월 4-6일 열린다.

올해로 다섯 번째 진행된 목포 문화재 야행은 지난달 '지붕없는 박물관'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모던 타임즈'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문화재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도시철도공사 사장 공모

임원추천위, 20일까지 접수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제8대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

12일 광주 도시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지원서 등 제출 서류는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받는다.

지원 자격은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도시철도와 철도 관련 기관 경력자,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한 조직 운영 능력을 갖춘 자 등이다.

임원추천위원회는 1차 서류, 2차 면접 심사를 통과한 최종후보자를 임명권자인 광주시장에게 복수 추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선정해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3년 임기 사장으로 임명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침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

